정원문화 대중화를 위한 한국정원 재정립 연구

Studies on the Re-establishment of Korean Garden for the Popularization of Garden Culture

한국 전통정원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한 한국정원 대중화 방안 연구

The Reinterpretation of Korean Historic Garden for the Popular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n Garden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제 출 문

국립수목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한국 전통정원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한 한국정원 대중화 방안 연구"위탁 과제 용역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 10. 31.

위탁연구기관명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연구책임자 : 박 희 성

공동연구원 : 박 준 서

연 구 원 : 길지혜

" : 신 지 선

" : 황주영

기단에만 사용하고 그 외의 정원은 자연적으로 구상, 이끼는 자라면서 그리드 패턴을 점점 뒤덮게 되며 정원은 자연스럽게 주변의 경관을 끌어들이고 있음

: 미레이는 가레산스이 양식으로 설계한 정원이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설계 또한 실패할 확률이 적다고 언급, 본인이 축적한 기술은 현대적 정원 설계를 가능케하였고, 모더니티가 영구화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함 (Christian Tschumi, Mirei Shigemori 1896-1975: Modernizing the Japanese garden, 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Zurich Doctoral Dissertation, 2004, 101-108; Shigemori Mirei, Shigemori Mirei, Creator of Spiritual Spaces, Kyoto: Kyoto Tsushinsha Press, 2011, 14-25.)

: 시게모리 미레이의 고택 서원과 정원은 정원미술관으로 공개되고 있음, 서원의 앞마당은 미레이가 1970년에 설계한 작품임

: 1950~70년대에 해외에서는, 일본정원을 예술적으로 현대화한 시게모리 미레이의 작품과 이사무 노구치의 작품을 높이 평가하였지만, 일본의 대중은 자연을 모방한 "mixed woodland" 스타일을 더 선호하였음 (Kuitert, 2016, 297.)

표 4-4. 교토 도후쿠지 방장 정원



네 곳의 바위와 다섯 개의 언덕으로 조성된 남쪽 정원 (ⓒ길지혜)



돌기둥을 재활용 한 동쪽 정원 (©길지혜)



바닥 돌 그리드 패턴의 북쪽 정원 (ⓒ길지혜)



철쭉과 자갈로 그리드 패턴을 형성한 서쪽 정원 (ⓒ길지혜)

- 가토 도모키(加藤友規), 우에야가토 조원주식회사(植彌加藤造園株式会社) 대표
 - : 가토는 일본정원을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현대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는 인물임, 2018년 일본 이코모스상(2018 Japan ICOMOS Award)을 수상
 - : 우에야가토 조원주식회사에서 하는 일은 일본정원 조성과 관리, 육성, 활용에

이르기까지 폭넓음, 전통공간부터 현대 공간에 이르기까지 공간 콘셉트에 맞는 다양한 일본정원을 조성

: 문화재 공간 내 일본정원을 조성

- 문화재 복원은 원형의 형태 연구과정을 거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부가함, 그 시대의 소재와 공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당대(當代)의 재료와 공법으로 복원하고자 함, 그 시대의 것이 우수해서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 특유의 분위기가살아나지 않기 때문
- 조성 당시에 의미 있었던 조망점이나 경관 자체를 지키고자 함
- 전통의 조원기술을 전수하고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을 중시

: 조성한 일본정원의 성격에 맞는 '육성'

- 가토는 정원 조성에는 40%, 육성(fostering)에는 60% 비중을 둠, 정원에서 조성뿐 아니라 조성 이후의 관리, 더 나아가 육성의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
- 정원에는 '완성'이라는 말이 적절치 않으며 정원마다, 혹은 정원소재마다 각각의 개성과 일생(탄생에서 소멸까지)이 있어서, 그 특성과 상황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 조성 당시의 조영 원리를 이해하고 현재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정원에 가장 적합한 육성방안을 모색
- 자연을 열심히 관리하면서도 그 관리가 드러나게 느껴지지 않도록 노력

표 4-5. 지속적인 정원 육성 노력



전통공법 기술의 전수 (https://ueyakato.jp/en/takumi/everlasting-comfort/)



정원 관리에 사용하는 재래식 도구 (https://murin-an.jp/en/ueyakato/)



해외 일본정원 조성 시 관리방법을 전수 (https://japanesegarden.org/2018/11/29/fostering-th e-future)



재래식 도구를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정원 관리 (https://web-japan.org/niponica/niponica26/en/fe ature/feature03.html)

: 일본정원의 활용

- 일본정원의 지속성을 위해 정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우에야가토 조원주식회사는 여러 일본정원의 관리와 활용을 담당
- 무린안 정원을 전통 방식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새로운 방향으로 다양한 정원 활용방 안을 제시하기도 함
- 정원의 관리기관이 교토시 공원관리과에서 문화성으로 변경되면서, 전통정원의 관리방안과 120년 정원의 이야기와 역사를 모두 다루는 활용 프로그램을 제안, 현재 정원에 관련한 다양한 강연, 일본어 영어 정원 투어, 이브닝 렌탈, 이끼 미니어처 정원 만들기, 다도 체험 등 여러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 입장권, 기념품 등 정원의의미를 담은 디자인 상품을 개발

표 4-6. 무린안의 여러 활용 프로그램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어 정원 투어 (https://murin-an.jp/en/events/)



미니어처 이끼정원 만들기 수업 (https://murin-an.jp/en/events/)



정원에서의 전통 악기 연주 감상 (https://murin-an.jp/en/about/)



저녁시간 정원 임대 프로그램 (https://murin-an.jp/en/illuminati on/)



무린안의 주요 5대 경관요소(비, 히가시 산, 야생화, 물의 흐름, 이끼)를 주제로 입장권 및 각종 기념품 디자인 개발 (우에야가토 조원주식회사 제공)

: 현대 건축공간의 일본정원 조성

- 우에야가토 조원주식회사는 2008년 후쿠주엔이라는 우지(宇治)차 회사의 플래그십 스토어(福寿園京都本店)에 실내조경과 중정 디자인을 맡게 되면서 '전통과 현재의 조화'를 시도

교토의 플래그십 스토어는 '하늘의 정원(天空の庭)'을 주제로 층별 콘셉트를 달리하여 중정과 곳곳의 실내정원 조성, 미타테(見立絵)라는 일본의 전통디자인 기술을 사용하여 돌, 가산, 수목이 유명한 장소 또는 산을 끌어와 이미지를 부여하고자 함

각층별 중정에는 차와 연관된 다양한 디자인을 도입

바닥포장을 다른 역사정원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전통기법으로 사용, 전통공법의 구현으로 현대적인 재현이 가능함을 보여주어서 큰 의미를 가짐

표 4-7. 후쿠주엔 플래그십 스토어 중정과 실내정원 디자인



4층 화장실 수전 (https://ueyakato.jp/en/gardens/fukujuen/)



5층 중정 (https://ueyakato.jp/en/gardens/fukujuen/)



8층 가레산스이 정원 (https://ueyakato.jp/en/gardens/fukujuen/)



돌을 촘촘하게 까는 아라레코보시 기법을 활용한 바닥 포장 (ⓒ신지선)

표 4-8. 호시노야 리조트 디자인에 사용한 전통 공법



호시노야 리조트 가레산스이 정원의 재현 (ⓒ길지혜)



호시노야 리조트 가레산스이 정원 재현의 디테일 (ⓒ길지혜)



가쓰라 리큐 정원의 전통적인 바닥 포장 참조 (©길지혜)



호시노야 리조트 호실별 진입부 바닥 포장 (©길지혜)

- 2009년에는 교토 아라시야마 지역에 위치한 호시노야 리조트(星のや 京都)를 리모델 링 하면서 호텔 주변에 일본정원을 조성

건축가 하세가와 히로키(長谷川浩己)와 연계하여 디자인을 함께 진행, 우에야가토 조원주식 회사의 전통 기술이 곳곳에 사용됨. 전통과 혁신을 조화시킨 사례로 평가

전통 공법으로 바닥 돌을 놓는 경우 기술 자체는 전통적 기술이지만 현대의 삶에 적합한 방식으로 변형, '아라레코보시(あられこぼし)' 방식이라 불리며, 보행자의 구두 굽이 빠지지 않도록 바닥 패턴을 촘촘하게 구성, 숙련된 장인 기준 1일 30×30cm 정도의 공정이 소요되어오랜 시간이 필요한 수작업을 요하는 공법

화강암 조각 대신 기와를 사용하여 모래의 흐름을 표현하여, 정원 내부를 거닐 수 없는 가 레산스이 정원의 단점을 극복, 정원을 실제로 거닐 수 있게 함, 정원을 장식하는 돌에는 앉는 기능을 도입, 디자인한 벤치 스톤이 장식 돌로 배치됨, 벤치 스톤의 상판을 반짝이게 연마하여 주변 경관을 반영하도록 하였음, 가레산스이 정원을 형태적으로 재현하면서도 정원에 직접 들어가 주변의 좋은 경관을 감상할 수 있게 했으며, 정원을 요가, 음악 공연 등의 여러이벤트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하게 함

전통을 밑바탕으로 삼아, 현재의 미의식을 포함한 여러 아이디어를 도입하고자 노력

2) 싱가포르의 사례

■ 싱가포르의 역사적 배경

- 1819년 인구 1,000여 명의 작은 항구도시였던 싱가포르는 영국의 식민지배와 자유무역항 정책으로 급속히 성장,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대영제국 식민지라는 상대적 안정감에 더하여 전통적 권위와 상업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에서 매력적 이민지가 됨
- 싱가포르는 말레이인, 중국인, 인도인 등 동남아 여러 민족과 유럽인, 중앙아시아 인, 유라시아인, 아랍인 등 다민족 사회를 이룸, 특히 1867년 전체 인구의 65%를 중국인이 차지하면서 현재까지도 인구의 3/4을 중국계가 점하고 있음 (탁충석, 1930~1950년대 SIT가 공급한 싱가포르 공공주택에 관한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8.)
- 싱가포르 오픈스페이스 계획의 주요 특성 (Rinaldi B. M., Post-Colonial Strategies: Open Spaces in Twentieth- and Twenty-first-Century Singapore, Die Gartenkunst 27(1), 2015, 151-164,)
- 싱가포르는 오픈스페이스 계획을 통해 식민지기 이후의 국가 정체성을 구축하고자함, 공공 오픈스페이스 계획에서 싱가포르의 고유한 열대 자연 특성과 중국 미학의영향 두 가지를 부각하는 데 중점을 둠
- 1960년대에는 싱가포르 국가 이데올로기와 정체성을 회복하는 전략으로 먼저 열대 수림대를 회복하고자 함, 엄청난 수량의 지역 자생 수목을 식재하면서 녹지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임
- 2000년대부터는 열대 경관을 도시 성장과 통합하는 방향에 대해 고민함, 2001년 국립공원국(National Parks Board)에서 지역의 고목을 보호하기 위한 유산 수목 계획(Heritage Trees Scheme)과 5곳의 수목으로 열식된 경관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유산 도로 계획(Heritage Road Scheme)을 수립, 이는 60년대 식재된 커다란 열대 수목들이 싱가포르의 자연경관을 특징하는 요소가 되고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줌

부록 2-7. 가토 도모키(加藤友規), 우에야가토조원주식회사 대표, 교토조형예술대학 교수

-인터뷰 일시: 2019년 9월 22일 9:00-12:30

-장소: 일본 교토 콘카이코묘지, 무린안

-참석자: 박희성, 박준서, 황주영, 길지혜, 신지선

■ 장소 1: 콘카이코묘지(金戒光明寺)

- 콘카이코묘지(조도 종파의 본사)의 북동쪽에 가토가 조성한 시운노니와(紫雲の庭) 정원 답사
- 조도 종파의 창시자인 호넨 쇼닌의 사망 8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짐
- 호넨의 삶과 관련된 사람들을 표현하는 다양한 크기의 돌을 사용해 표현한 가레산 스이 정원





■ 장소 2: 무린안 정원





- 이웃집이 없는 초가'라는 뜻의 무린안은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개인 별장
- 메이지시대의 정원으로 지천회유식을 대표하는 정원
- 정원은 일본식이지만 건물은 서양식으로 근대 일본 개인 정원의 예시가 됨
- 정원은 1897년 오가와 지헤이가 작정하여 완공

■ 장소 3: 무린안의 오모야(母屋) 2층 인터뷰

- (1) 일본정원의 전 세계적 성공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지금은 세계가 다 가까워서 일본정원을 가깝게 느끼게 된 것은 사실이다. 반세기 동안 일어난 변화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정원의 '깊이' 혹은 '깊은 맛'을 일본인 외의 사람들도 흥미 있게 느낀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느꼈다. 실제로 본인의 정원에 일본정원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혹은 일본에 땅을 사고 정원을만들고 싶어 하는 외국인도 있다. 그런데 일본정원이 일본에 있어서 일본정원일까? 일본정원을 육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까지의 현상을 보면 외국에 정원을 만들어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원래의 모습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있다. 미국 오리건 주의 일본정원 등이 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외국의 정원 가운데 50년 이상 오래된 정원도 있다.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일본정원에서는 육성과 관리가 중요하다. 열심히 조성하여 정원을 준공했을 때의 멋진 모습에 감탄하지만, 정원의 긴 인생에서는 이는 한 순간일 뿐이다. 정원의 일생을 봤을 때 정원이 준공된 것은 완성이 아니다. 완성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원의 생명이 탄생했다고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무린안은 정원으로 태어나 120년 된 정원이다. 120년의 세월을 존경한다.
- 일본정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월을 가는 것이다. 어떤 정원은 400년, 700년이 되었다. 정원의 개성에 따라 잘 키워가자. 마치 아이가 탄생하여 개성에 따라 잘 키워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2) 일본정원이 가지고 있는 과제와 나의 최종적인 목표에 대해

- 시간이 지나면서 정원에서 주가 되던 것들이 없어지기도 한다. 환경이 변화하면서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어릴 때 봤던 식물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기도 한다. 그런 점을 의식해야 한다. 식물을 사용하는 정원에서 그 식물이 없어 지지 않게 하는 것은 세계 전체의 과제다. 이것은 생태계의 문제다. 이러한 원칙을 잊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생태계, 생물을 중요시 여기는 것, 종의 보존 등이 과제다.
- 전제이자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식물을 보존한다고 해서 정원이 보존되는 것은 아니다. 정원을 만들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Garden Craft라는 기술, 미의식등의 레벨이 점점 저하되고 있다. 하이테크 기술은 굉장히 발달하고 있으나, 완성, 미의식, 기술 등을 지닌 정원사의 기술은 상당히 저하되고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옛날이야기가 일본에 있는데, 여기에서 할아버지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가고할머니는 빨래를 하러 간다. 그때 할아버지는 하늘의 구름의 흐름을 보고 1시간 후비가 오겠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고 할머니는 어떤 물고기가 어느 계절에 있고 주변에 어떤 꽃들이 피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생활 주위에서 자연에 대한

미의식을 알게 되었는데 지금의 정원사들은 핸드폰이 없으면 날씨를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야단을 치게 된다. 느낌을 길러야 한다고 말한다.

- 하이테크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100년 전의 사람들은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의 사람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있다. 테크놀로지의 진화가 일어난 50년 후에도 정원사가 잘하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노력한다.
- (3) 전통정원의 재해석에 대한 의식과 필요성에 대한 생각
- 정원이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존중할 것, 그 가운데서 지금의 모습을 중요시해서 앞으로 간다.
- 즉 정원 자체의 개성을 잘 이해해서 지금부터 이 정원이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기면 서 키워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면서 키워가야 한다. 똑같은 느낌이 나도록 모든 정원의 나무를 관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각 정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 (4) 현대적인 공간에 새롭게 디자인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 이 사진은 도쿄의 호시노야 료칸에 있는 정원이다. '아라레코보시'라고 하는 전통적인 돌 놓는 기술을 적용했는데, 하이힐을 신은 사람도 다니는 곳에 전통적인 기술을 도입했다. 전통 방식에는 틈새가 있지만 여기에는 틈새가 전혀 없다. 가츠라리큐에 있는 틈새를 두고 포장한 아라레코보시 방식으로 조성된 길을 떠올려보자. 이를 현대 공간에 조성할 때는 그러한 니즈에 맞춰서 조성한다.
- 전통적인 기술이 있지만 현대 공간의 필요성에 맞춰 진화시킨 예이다. 작정법이 있다고 이를 있는 그대로 하면 안 된다.
- (5) 설계 시 비용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것이 특별히 제작한 것인가, 특허를 받은 것 이가
- 이는 작업은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다. 본 사에서는 이를 '유니트 공법'이라고하고, 현재 특허 신청 중이다. 가령 실제로 조성하려면 6개월 걸리는 작업을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면 이를 교토에서 미리 만든 뒤, 옮겨가서 넣는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연구해서 작업한 공법이고, 이 공법은 두바이 공사에서도 사용되었다. 세계적으로 일본 전통공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전통 방식으로 돌을 하나하나 끼워 넣는 작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에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공법을 연구하고 있다. 현대의 정원을 만드는 기술 역시 반드시 전통 공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통 공법을 바탕에 깔고 작업한다. 생각의 바탕이 되는 책은 『사쿠테이키(作庭記)』다. 이천 년 전 이야기인 『사쿠테이키』 안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이는 당대의 이야기를 표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를 밑바탕으로 삼아 자기 자신의 미의식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작업해야 한다. 선배들의 말을 일하는 것입니다. 교토는 794년부터 일본의 수도였기에 그동안 많은 정원이 만들어졌고, 문화재, 명승 등으로 지정된 정원도 50여 개가 있다. 선배들이 남긴 정원을 기본으로 하여 정원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 그러한 철학은 별안간 느낀 미의식이 아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세의 미의식 과 함께 794년부터의 역사를 마음속에 심어 생각해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일본정원을 이야기할 때 그러한 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우리 회사의 이념이기도 하다. 전통에서 배우고 동료에게서 배운다. 동료들과 함께 토론하는 것은 공부가 많이 된다. 그리고 『사쿠테이키』에 나오는 선배들의 이야기도 중요하게 여긴다.

- (6) 전통 소재를 사용해서 현대의 느낌을 내고 있는데, 현대 소재로도 전통적인 느낌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선호하는 방향은?
- 문화재는 당대의 소재와 공법을 존중하고 그에 맞춰서 작업해야 한다. 500년 전만들어진 정원이 있었는데, 지진으로 무너져 버렸다. 굉장히 중요한 정원문화유산이라 복원을 해야 하는데, 현대의 기술로 조성하면 절대 안 된다. 물론 옛 정원이라고 해서 모두 다 잘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지금의 우리의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곤 하는데, 굉장히 기술이 좋은 사람이 작업하는 바람에 너무 잘 조성되어 그 맛이 나지 않아 곤란할 때도 있다. 기술이 약간 서툰 사람이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시대의 재료와 공법으로 복원해야 한다.
- 전통공간에 어쩔 수 없이 현대 공법이 필요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문화재가 아닌 일반적인 정원 가운데에서는 옛날부터 있는 정원이라 할지라도법에 적용받지 않고 얼마든지 소유자와의 상의를 통해 정원에 맞는 선택을 할 수있다.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소재를 사용하여 현대정원을 조성한다. 호시노야 같은경우 코르텐강 같은 현대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조성했다. 이런 정원은 전통을 깔고현대의 모던한 느낌을 넣었다. 가레산스이 스타일이지만 걸어 다녀야 하기 때문에기와를 사용하여 모래의 흐름을 형상화했다. 일본 전통공간에서 목책과 같은 것을사용하여 경계선을 조성하는데 현대 공간에서는 스틸을 사용했다. 이 돌은 장식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앉을 수 있는 벤치가 되기도 한다. 여기에 단풍잎이 비치는 느낌, 물에 반영되듯이 돌에 반사된 모습을 보는 느낌이 나도록 조성했다.
- 이러한 기법은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기법인데 그것을 현대적 기술로 구현한 것이다.
- (7) 일본인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인가?
- 『사쿠테이키』에도 나와 있지만 가장 주목할 것은 자연을 경외하는 마음을 기초로 한다는 점이다. 사람이 만든 정원은 자연의 풍경을 이길 수 없다. 커다란 자연이 만들어 낸 모습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미력한 인간이 만든 정원은 멋있지만, 자연보다 나을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서양 정원은 자연을 지배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정원은 자연의 경치를 경외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의 생명감과 약동감을 느낄 수 있다.
- (8) 자연을 경외하는 동시에 지향하는 점이 있는가?
- 무린안은 고향의 아름다운 풍경을 가져온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자연을 가져오려고 노력했다. 자연을 최대한 표현하고자 했다.
- (9) 자연을 가져오는 것처럼 만들되 실제 자연보다 훨씬 아름다운, 가장 이상적인 자연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일본정원 아닌까? 자연을 굉장히 통제하는 특징이 있지 않은가?

• 맞다. 자연을 경외하면서도 자연을 실현하고자 한다. 자연을 열심히 관리하면서도 그러한 관리가 느껴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한다. 한 중 일 모두 자연 모습을 그대로 살리려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10) 시, 정부와 어떻게 소통하시는지?

• 저 같은 경우에는 스님들과 사이가 아주 돈독하여, 평상시 대화를 즐겁게 많이 나는다. 어려운 토론보다는 가벼운 이야기를 통해 일이 진행된다. 무린안은 교토 시관할이었는데 2007년에 문화성으로 관리청이 바뀌었다. 교토 시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할 때는 문화재가 아닌 공원으로서 관리가 되었다. 물론 관리는 잘 되었지만 단순한 공원관리였다. 문화재로 관리할 때는 120년 된 정원의 이야기와 역사를 모두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 회사에서 제안을 했고, 관리하게 되었다.



